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REMEMBER THIS DAY



Gillettenarrative.com

이 GILLETTE의 날을 기억하라

GILLETTE AUDIO — NANDO THE SCRIBE

나는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급히 전화 연락을 청하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WALMART USA.

또 하나의 장난이려니 했다 — 그러나 4월 1일이 아니었다. 그저 6월 22일, 하지가 시작된 다음 날. 어쩌면 첫 햇살이 누군가에게 조금 너무 세게 입을 맞췄는지도 모른다.

나는 곧바로 아내에게 장 본 값을 냈는지 물었다 — 어쩌면 카드 결제가 거절되었을지도 몰랐다. 아내는 나를 안심시켰다: 거기서는 장을 보지 않는다고. 아내는 동네 가게에 간다. 거기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브랜드보다 강하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원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소유주의 자녀들을 만난 기억도, 과거에 그들과 어떤 거래를 한 기억도 없다. 매니저도, 부서장도 없었다 — 다만 아주 오래전, 어느 계산원과의 짧은 연애가 있었지만, 그것도 영수증 한 장만큼만 갔다.

나는 샤워를 했다. 전화하기 전에 정신이 완전히 맑아지고 싶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아내에게 내 옆에 앉아 달라고 했다 — 아내가 영어를 알아서가 아니라, 여자가 곁에 있으면 결코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번호를 눌렀다. 비서가 받았다. 내가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녀는 펄쩍 뛰며 소리쳤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Walmart 부인께 연결해 드릴게요.

맙소사, 소유주와 이름이 같다. 이런 행운이 — 동명이인임에 틀림없다.

수화기 저편에서: Suzann Walmart. 나는 그녀가 창업자들의 친척인지 먼 사촌인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 나를 보고 싶어 한다.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내게 계약 조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글쎄요 — 첫째, 레조칼라브리아로 오세요. 둘째, 소유주가 서명한 1달러만 가져오세요.

좋아요. 제가 직접 서명하죠.

맙소사. 그녀가 소유주다.

그녀는 내게 단 한 가지만 묻는다: 그들의 매장 안에서 여자가 나의 글 — Gillette Narrative — 에 다가가는 모습을 나는 어떻게 보느냐고.

대답은 즉시 나왔다. 그리고 나는 학위도 없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여자들은 결코 물건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져가죠. 언제나 그랬어요.

나는 그녀에게 표지 하나를 보낼 것이다 — 그녀의 매장 안의 여자들에 대한 나의 비전을.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그들은 결코 내 책값을 치러서는 안 된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모두가 언제나 하는 그 말을 했다:

그런데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그저 당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Nando